광주일보 한국갤럽
시·도민 의식조사

지금 민심은…

광주일보는 정해년(丁亥年) 새해를 맞아 올해 말 치러질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의 표심과 사회·경제 현안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구랍 22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지난 4월 이래 8개월만으로 대선 직전까지 수차례 더 실시될 계획이다.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.

차기대통령 최대 과제는 실업 해결

이명박 전 시장 광주서 23% 급상승무드
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0.7% 아직은 부진

■ 대선 후보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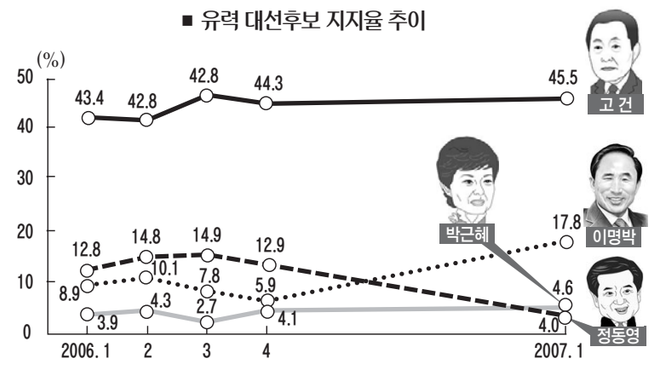
고건 전 국무총리의 지지도가 45.5%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고 전 총리의 지지도 1위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현상으로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조사에서 43.4%를 기록한 이래 2~3%P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. 50세 이상(55.2%), 중졸 이하(56.7%), 농·임·어업인(57.9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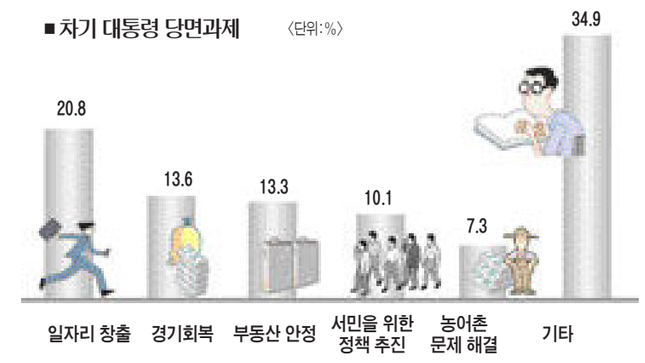
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7.8%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는 점. 이 전 시장의 지지도는 지난해 2월 조사에서 10.1%를 정점으로 7.8%(3월), 5.9%(4월)로 하락세를 걷다가 전국적인 지지도 상승과 함께 광주·전남지역에서도 급등세를 나타냈다. 여자보다는 남자(24.1%), 20대 이하(24.1%)와 40대(24.4%), 대재 이상(28.3%), 화이트칼라(33.5%)와 학생(32.8%) 사이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 또 전남(14.2%) 보다는 광주(23.1%)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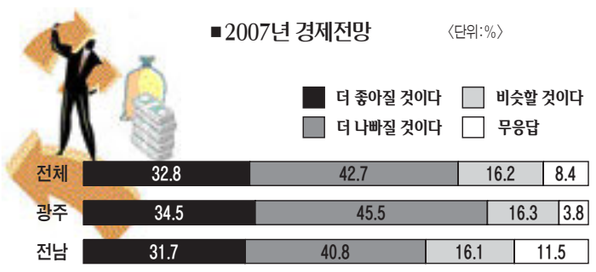
반면 지난해 10%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하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 조사에서 4.0%의 지지율로 박근혜(4.6%) 한나라당 전 대표와 김근태(4.4%) 열린우리당 의장에게도 밀렸다.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조차 정 전 의장은 6.8% 지지만 받아 이 전 시장의 지지율 13.1% 절반밖에 되지 못했고 박 전 대표(6.2%)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. 한나라당 빅3 중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.5%의 지지율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권 후보로 최근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아직은 낮은 인지도 때문에 0.7%의 부진한 지지율을 기록했다.

■ 차기 대통령 과제

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나라의 당면과제 1순위로 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들은 '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'(20.8%)을 꼽았다. 이어 '경기회복 및 경제 활성화"(13.6%), 부동산 안정(13.3%)을 드는 등 대부분이 경제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 4위는 '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'(10.1%), 5위는 '농어촌 문제'(7.3%)가 차지했다. 이 외에도 물가안정(4.9%), 정치안정 및 개혁(4.6%), 빈부격차 해소(3.8%), 공교육 정상화(3.2%), 복지정책 강화(3.0%), 북한핵문제 해결(2.6%) 등이 우선 순위에 들었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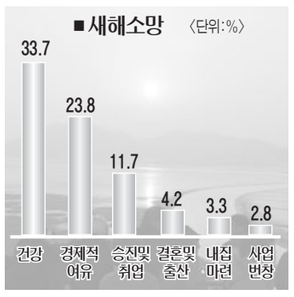
"한국경제 더 나빠질것" 43%

■ 올해 경제 전망

지난 1년 생활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른데 이어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'더 나빠질 것이다'(42.7%)는 응답이 '더 좋아질 것이다'(32.8%)는 응답보다 10%P 많게 나왔다. 이는 지난해초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다. 지난해 신년 조사에서는 낙관론이 52.8%를 기록, 비관론(23.9%)를 압도했다. 이같은 기대와 달리 지난 한해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망한 나머지 올 한해의 경기회복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비관론은 30대(52.4%), 대재 이상(52.3%), 자영업자(55.4%), 화이트칼라(59.9%)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■ 새해 소망

지난해와 마찬가지로 '건강'(33.7%)을 최우선 소망으로 꼽았다. 이어 23.8%가 '경제적 여유', 11.7%가 '승진 및 취업'을 새해 소망으로 들었다. 경제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 이어 '결혼 및 출산'(4.2%), '내집 마련'(3.3%), '사업 번창'(2.8%), 연봉 인상(1.9%), '진학'(1.4%) 등이 뒤를 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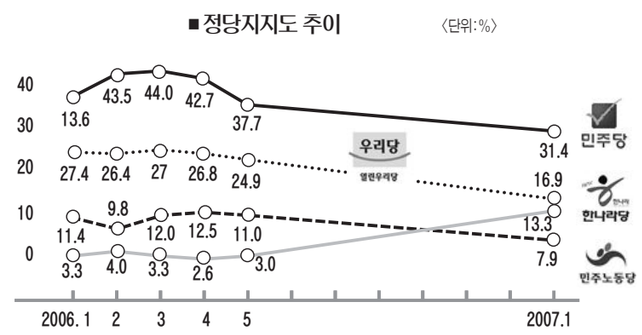
한나라 호남구애 효과?
지지도 3.3→ 13.3%
〈2006.1〉 〈2007.1〉

■ 정당 지지도

민주당 지지율이 31.4%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이 16.9%, 한나라당이 13.3%로 뒤를 이었다. 역시 한나라당 지지도의 급상승이 눈에 띈다.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해 1월 3.3%, 2월 4.0%, 3월 4.0%, 4월 2.6% 등으로 지난해 1·4분기까지 2~4% '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. 하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 급등과 함께 한나라당 지지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 한나라당 호남 구애 공세도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.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(19.8%)과 비슷하게 19.7%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등 낮은 연령층은 과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.

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. 지난해 1월 39.9%를 기점으로 2월 43.5%, 3월 44.0%, 4월 42.7% 등을 기록했던 민주당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10%P 이상 떨어졌다. 지난해 20% 후반대의 지지율로 광주·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지지도 경쟁을 벌였던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16.9%로 역시 10%P 하락했다. 두 당 모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논의가 본격화되는 관계로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.

또 지난해 10%대 이상의 지지율로 광주·전남지역에서 제 3당의 위치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도 이번 조사에서 7.9%까지 떨어짐으로써 대선정국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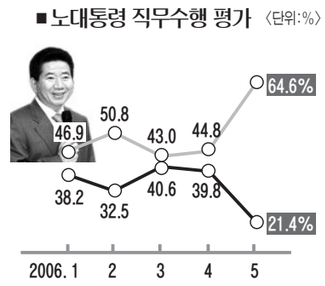
"잘한다" 고작 21% 뿐

■ 노대통령 직무 수행

응답자의 21.4%가 '잘하고 있다', 64.6%가 '잘못하고 있다'고 답했다.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'잘하고 있다'가 40%대 이하, '잘못하고 있다'가 40%대 이상에서 각각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%대 초반까지 떨어졌다.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부분 10%대까지 떨어진 전국 조사 결과와는 달리 20%대를 유지, 다른 지역보다는 광주·전남지역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남북정상회담 시기

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.0%는 '가능한 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'고 답했으나 33.9%는 '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'는 의견을 보였다. 대재 이상(45.4%)과 화이트칼라(50.4%) 층에서, 또 한나라당 지지자(42.3%)와 이명박 지지자(41.0%), 박근혜 지지자(42.8%) 등 사이에서 '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'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

〈5면으로 계속〉